

2015년 제1차 보건·복지 자살예방 TF 팀 회의록

- 일 시: 2015. 3. 31.(화) 16:00~17:00
- 장 소: 성동구청 5층 세미나실
- 참 석: 총 17명
 - TF 팀장: 보건소장
 - 팀 원: 교육기획팀장 외 16명

□ 회의록

1. 인사말

○ 회장: 김경희 보건소장

생명존중, 자살예방의 의지가 담겨있는 신념으로 건강지원팀에서 생명건강팀으로 팀 이름을 바꿨다. 마을복지센터로 전환되면 복지가 필요한 곳에 더 많이 도움을 주고 대상자를 발굴해야한다. 자살, 생명존중도 결국은 막으려면 복지가 강화되어야 한다. TF팀 회의를 운영하면서 논의 하는 부분이 지금까지 좋은 성과를 냈다. 자살자가 줄지는 않았지만 지역에서 자살위험자를 발굴하고 지역의 마중물협의체,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연계, 자살예방지킴이 양성이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성동구가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는 관계를 맺고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구가 되기를 바란다. 자살을 막기 위해서 각 팀에서 일어났던 일이나 사례 및 우리 구가 복지가 잘 되고 있는 구인지, 많은 의견 부탁바람.

2. 2014년 자살예방사업 결과보고 및 2015년 사업방향에 대한 발표

- 발표자: 성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 이정임 팀장
- 발표자료: 붙임문서(PPT 자료)

3. 사회자: 김연화 생명건강팀장

자살예방사업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업이다. 시범 관리동을 지정

하고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소장님께서 통장님들을 일일이 만나서 설득하고 자살예방교육을 시작했다. 혼자 할 수 없는 사업이다. 한사람 한사람 고위험군을 발견해서 의뢰해 주어야 한다.

시범 관리동 7개동의 통장님, 사회복지사, 복지업무 담당자들이 자살예방지킴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관련 부서의 협조가 필요하며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의뢰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살예방사업의 나아갈 방향, 협조사항에 대한 의견을 바란다.

○ 노인복지팀: 이태호 팀장

재가관리사들이 노인 기본서비스 돌보미 교육을 받고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자로 노노케어 활동자 60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자살예방지킴이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살예방지킴이 교육이 복지관련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 심폐소생술 교육도 처음에는 119 구급대원 대상으로 하다가 전 공무원이 교육받고 있다.

생명존중의 의미에서 전 공무원이 교육 받고 자살 및 우울 징후에 대해 이해하고 주변의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 방문보건팀: 임희순 팀장

동마을복지센터 협력관련해서 복지플래너로 사회복지사와 마을간호사가 나가는데 아직 지표가 표준화 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65세 기초건강 면접조사표를 쓸 예정이며 따로 우울과 치매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면접조사표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확인 부탁한다.

○ 회장: 김경희 보건소장

자살자 동향보고를 받는데 거의 종료된 후 받고 있다. 병원과 연계하여 유가족 관리와 자살시도자 관리도 하고 있다.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자살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나 정신건강증진센터와의 밀접한 관계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

이 든다. 정보를 얻는 것에 대해서 저해요인이 무엇인지, 복지대상자 전수가 보건소로 연계되는지도 궁금하다.

○ **송정동 주민센터 복지팀: 오명신주무관**

송정동은 보건소와의 거리가 멀어서 보건지수가 떨어진다. 거리의 문제도 중요하다. 의뢰를 해도 실제로 방문을 오는게 힘들다. 통장님들에게 자살예방교육을 한번으로는 인지가 안 될 것 같다. 통장들이 그런 케이스(자살고위험)가 있어도 잘 모를 것 같다. 통장의 자원 이용이 좋지만 주위 분들의 자살욕구나 우울이 있는지를 저희에게 알릴 때는 아주 급박한 경우에 알린다. 징후가 보인다고 힌트를 주지는 않는다. 거의 케이스가 없다. 마음이음친구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말 벗 서비스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잘 되는지 의문이다. 그분들이 집에 일일이 전화해서 말 벗 서비스 방문하겠다고 연락해야한다. 대상자들은 너무 귀찮아한다. 그것으로 우울증이 개선되는지도 의문이다. 나이가 너무 많은 경우가 많아서 노노케어 서비스로 활용이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 **질병예방과: 한경숙과장**

의뢰를 했는데 거리가 멀어서 한계가 있다는 것이 어떤 거리를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 **송정동 주민센터 복지팀: 오명신주무관**

알코올 문제로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역적 거리가 있어서 약속잡기가 힘들고 오기도 힘들다.

○ **질병예방과: 한경숙과장님**

노력해야 할 문제다. 인원이 없는 것도 한계다. 타구에 마음이음 친구도 나이가 대상자 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다. 일자리시스템과 연계되어서 그런거 같다. 센터의 마음이음친구는 그 정도는 아니고 자살예방지킴이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센터 연계 할 정도는 아닌 분들을 대상

으로 돌보아주는 조금 더 전문적인 시스템이다.

27명이 활동하고 있고 29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활동가들의 조정이 필요한 상태이다. 동 주민센터의 노노케어와는 조금 다른 사업이다.

○ **송정동 주민센터 복지팀: 오명신주무관**

봉사하시는 분들이 지역적 거리가 맞지 않아서 송정동까지 오기가 힘들다. 봉사하실 분이 없다.

봉사자 발굴이 필요하며 서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4. 맺는 말

○ **회장: 김경희 보건소장**

자살예방지킴이 교육의 전 직원 교육은 좋은 의견이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한번으로 안 되고 해마다 수료증을 받고 습관화가 되어 있어야 한다. 심폐소생술 교육이 정례화가 된 것처럼 자살예방지킴이 교육도 전 직원 교육을 시작으로 정례화 하는 것은 좋은 의견이다.

마을 간호사 면접조사 추가사항은 팀장님들의 논의가 필요하다.

송정동에서 말씀하신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노케어와 보건소의 마음이음친구는 조금 다른 성격이다, 혼란이 있었으나 다른 점이 있다.

송정동과 용답동은 거리가 멀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서비스가 안 된다.

같은 성동구 내에서 지리적 위치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통장님 자살예방교육도 한번으로 안 된다. 통장들의 반복 교육으로 자살고위험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 동 주민센터의 도움과 복지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을 바란다. 끝.